



‘에코시티 더샵 3차’ 조감도. 총 2,070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더샵 3차 모델하우스 오픈

포스코건설, 에코시티 더샵 1차, 2차와 함께 총 2,070가구 규모 형성

포스코건설이 오는 7일 ‘에코시티 더샵 3차’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전주 에코시티 11블록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117㎡,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59㎡ 146가구, ▲84㎡ 274가구, ▲99㎡ 110가구, ▲117㎡ 114가구다. 더샵 3차 단지는 앞서 분양 완료한 1,2차와 함께 총 2,070가구 규모의 ‘더샵’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더샵 3차는 대부분 세대를 판상형

구조의 남향 위주로 배치해 개방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또 단지 중심에 위치한 더샵필드는 어린이집, 키즈풀, 맘스파크와 등이 연계 배치돼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꾸며진다. 아울러 단지 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인 키즈 스테이션도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택형에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드레스룸이 배치되며, 전용면적 59㎡A은 안방과 연계된 침실 1개를 드레스룸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부 타입에서는 저층 특화 테

라스 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에코시티 더샵 3차’가 들어서는 11블록은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들이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에코시티 더샵 3차’는 오는 11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에 실시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809만원이다. 모델하우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번지에 조성되며, 입주는 2019년 3월 예정이다. (문의전화 1661-0074) /신광영 기자

매일유업 맘마밀, 모바일 홍보 효과 ‘톡톡’

공식 SNS 4개월 만에 팔로워 5000명 돌파 기록

매일유업은 유아식 전문 브랜드 맘마밀의 공식 인스타그램이 개설한지 4개월 만에 팔로워 5000명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장수 브랜드 매일유업 맘마밀은 지난 6월 육아맘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가고자 단독 브랜드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 지난 4개월간 다양한 정보 및 이벤트 콘텐츠로 육아맘과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맘마밀 공식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는 기업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닌 단독 유아식 브랜드 채널이라는 점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엄마들의 입소문에 의해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측면 보다는 사진 기반의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생활 속 친근한 이미지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육아맘과의 접점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맘마밀 어워드 는 맘마밀과 아기가 함께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매 달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이벤트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모션 중 하나다. SNS를 통한 소통에 익숙한 젊은 육아맘들이 일상 속 아기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참여를 이끌었으며, 맘마밀의 전 제품이 담긴 ‘키 크리틱박스’를 경품으로 내걸어 입소문을 타고 맘마밀 대표 프로모션으로 자리잡았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통합 채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식과 아기 간식을 고민하는 엄마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와 맘마밀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전하기 위해 단독 브랜드 계정을 오픈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성분 화장품 버젓이 ‘판매 중’ 드러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해 판매 중이던 화장품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약처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 자료에 따르면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 명령 조치를 받은 화장품은 총 59품목이며 이 중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은 37품목으로 25만개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허술한 판매차단시스템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함유된 화장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동민 의원실에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MIT/MIT 물질이 함유된 판매가 중지된 화장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CMIT·MIT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원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5일 수리시설관리원, 쌀 전업농, 지역 농업인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했다. 지사에서 운용중인 농업 용수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을 소개해 수자원 관리현황과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지사 전반의 주요업무사항을 설명했다.

전북 대경산전, ‘그린 필리핀스2016’ 수상

‘최고 생산(Best Product)’ 상

전북도 선도기업인 (주)대경산전이 세계적인 컨벤션 그룹인 글로벌 링크(Global-Link) MP가 주최한 ‘그린 필리핀스 2016’(Green Philippines 2016)에서 ‘최고 생산(Best Product)’ 상을 수상했다. 5일 (재)전북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그린 필리핀스 2016’은 전 세계 환경산업 동향과 트렌드를 제시하고, 다양한 기업의 환경산업기술 확인해 볼 수 있는 필리핀 환경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달 22일~24일 이틀간 열렸고 독일의 대기업인 지멘스, 일본의 사프, 필리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인 PEMCOR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 약 300여사가 참가했다. 특히 (주)대경산전은 전력의 배전, 분전 과정을 한눈에 보기 쉬운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손쉽게 자동제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진 태양광 접속반을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주)대경산전 김대호 대표는 “이번 전시회는 필리핀 시장과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초석이 될 것이다”며 “다수의 설계와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과 사용자를 고려한 세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선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가 도출되는 것 같다”며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도 경제를 이끌어 갈 기업의 성공사례가 계속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대경산전은 태양광발전 및 제어장치 관련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지난 2012년에 전북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받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신광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원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5일 수리시설관리원, 쌀 전업농, 지역 농업인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했다. 지사에서 운용중인 농업 용수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을 소개해 수자원 관리현황과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지사 전반의 주요업무사항을 설명했다.

농어촌공, 물 관리 현장 설명회

전주원주임실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원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는 5일 수리시설관리원, 쌀 전업농, 지역 농업인대표 등 200여명을 초청해 2016년 물 관리 현장 설명회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 고乡 물 해설가인 전주원주임실지사 성치문 차장이 ‘저수지 설치배경과 역할 등 물의 소중함과 우리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이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또 지사에서 운용중인 농업 용수 관리자동화시스템(TM/TC)을 소개해 수자원 관리현황과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등 지사 전반의 주요업무사항을 설명했다. 김창호 지사장은 “행복한 농어촌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공사의 새로운 비전이자 목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벼농사가 잘됐다. 앞으로 도 지역농업인과 협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 해외수출

오리온이 ‘초코파이 정(情) 바나나’를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오리온은 1차로 대만·호주·필리핀 등에 약 20만 상자(12개입 기준)를 수출해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했다. 바나나와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맛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 출시 초기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은 1차 판매에 이어 미국, 캐나다 등 10여 개 국가로 판매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코파이 바나나는 오리온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초코파이 탄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자체 제품이다. 지난 3월 출시 되자마자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국내에 바나나 트렌드를 불러일으켰다. /뉴시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인증 의료기관
(유효기간 2014. 12. 4 ~ 2018. 12. 3)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군산의료원 전 진료과 의료진은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김영진

-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 말기 암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나눔병동 운영

각종 평가 우수기관

-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 폐렴 적정성평가 1등급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도내 1위

토요 진료 실시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

진료 과목 (237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신장내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과
호흡기내과	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정신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대표전화 063) 472-5000
http://www.gunmed.or.kr (홈페이지)